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state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In-Sook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를 확인하여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PANAS를 이용하여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9.0으로 분석한 결과, 정적정서는 남학생이, 부적정서는 여학생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적·부적정서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및 실습예정 병원유형이 정적정서에의 영향요인이었던 반면 성별이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의 정적, 부적정서에의 설명력은 각각 22.8%, 7.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느끼는 부적정서의 원인을 규명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중재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 전후의 정서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기타 간호학 학과목 실습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정서상태의 비교 연구 시행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아동간호학 실습, 정서상태, 정적정서, 부적정서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conducted on 143 junior nursing students using PANAS to get basic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 checking emotional state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he positive affe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but the negative affects were rever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showed the negative affects were influenced by sex, while the positive ones were by satisfaction in major, personality type, motive of admission, and types of hospital. The explanatory rate of these variable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were 22.8% and 7.8%, respectively. Emotional intervention program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is necessary through implementing qualitative researches identifying the causes of negative affects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Also, it is recommended the experimental studies comparing emotional states before and after child nursing practicum and other subjec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otional state, Child nursing practicum,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간호교육과정 중 대학 내에서 학습한

간호학 이론학과목과 교내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 간호상황인 임상현장에서 관찰과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간호술을 익히게 된다[1,2]. 또한 임상실습과정에서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인지하고,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leejung@naver.com)

Received October 19,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21,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간호직은 물론 다학제 간 실무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기술을 배워나갈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을 구체화하고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나가게 된다[3,4].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의 4배 정도의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임상실습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반면,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과 예기치 않은 다양한 임상상황에 대한 압박감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정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특히 아동간호학 실습의 경우 성인 대상의 실습과는 달리 많은 경우 보호자가 상주함으로 인해 직접간호실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신생아부터 아동들을 직접 대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질환으로 예민해진 보호자까지 간호의 대상으로 직면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다[6,7].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관련 정적정서는 활력을 더해 줄 수 있고, 부적정서는 우울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간호대학생이 아동병원 실습과 관련하여 느낀 정적정서로는 희망, 행복, 사랑, 기민함, 흥미 등이었고, 분노, 두려움, 무력감, 고도의 역할긴장 및 우울 등의 부적정서를 호소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6].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 부정적인 정서가 사회적,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나 현실을 회피하게 하고,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적정서를 유발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5.8%의 학생들이 우울을 경험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자살생각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14%가 자살을 고려하고 있어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낯설고 생소한 임상실습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1,8].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중 정서상태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임상실습 전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특히 모든 간호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의 정서상태를 조사하여

임상실습교육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관련요인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도 내의 일개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 중, 아동간호학과목을 이수하고 외부임상실습 첫번째 학기로 아동간호학 실습 수강예정인 자로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목적에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정 대상자수는 G*power 3.1.9.2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11개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수 123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제 연구대상자는 편의모집된 145명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143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정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9]를 이유정(1994)이 번안하고, 남정희(2016)가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하기 쉬우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서 ‘흥미진진한’, ‘깨어있는’, ‘신나는’,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깊은’,

‘열정적인’, ‘활기찬’ 과 ‘자랑스러운’의 10항목의 정적정서와, ‘과민한’, ‘피로운’, ‘부끄러운’, ‘마음이 상한’, ‘신경질적인’,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및 ‘두려운’의 10개 항목의 부적정서, 총 20개 항목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Watson 등(1988)이 보고한 Chronbach’s α 는 정적정서 .86, 부적정서 .87이었고, 남정희(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적·부적정서 각각 .86, .89이었으며[10],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 는 정적·부적정서 각각 .82, .80이었고,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20개 항목의 Chronbach’s α 는 .82이었다.

· PANAS 이외의 정서

일반적 특성을 기입할 설문지에 여백을 주어, 대상자가 아동간호 실습 전 일주일간의 자신의 정서상태 중 PANAS 외의 기타 정서를 자유로 기입하게 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루어진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PANAS 및 자유서술 공간을 포함하는 설문지 145부로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43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대상자가 익명으로 기입하는 설문지의 자료관련 내용이 어떤 대상자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으며, 기입한 자료관련 비밀을 보장할 뿐 아니라,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관할 것이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연구 참여 철회의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선행연구 문헌 고찰결과를 기반으로, 대상자가 매 실습 단위에서 실습 시작 전에, 아동간호학 실습 전 1주일 간의 정서상태를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의 평균은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나 Dunnett을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면, 연구대상자 중 20~24세가 93.7%(134명), 여학생이 79.0%(113명), 종교 없음이 67.8%(97명), 내향적과 외향적의 중간성격이 70.6%(101명),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함이 79.0%(113명), 평균이하의 전공만족이 54.5%(78명), 취업을 고려해 입학한 경우가 49.7%(71명), 가족 중 간호사 없음이 72.0%(103명),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한 경우가 31.5%(45명), 첫 번째 임상실습인 경우가 41.3%(59명)이었고 실습지별로는 중환자실 실습을 앞둔 대상자가 40.6%(58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3)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year)	20~24	134(93.7)
	25 over	9(6.3)
Sex	male	30(21.0)
	female	113(79.0)
Religion	yes	46(32.2)
	none	97(67.8)
Personality type	extrovert	35(24.5)
	middle	101(70.6)
	introverted	7(4.9)
Health status	unhelathy	4(2.8)
	average	26(18.2)
	healthy	113(79.0)
Satisfaction in major	below average	78(54.5)
	average	57(39.9)
	above average	8(5.6)
Motive of admission	to fit aptitude	53(37.1)
	to match grade	13(9.1)
	consider Job opportunity	71(49.7)
	to serve others	6(4.2)
Nurse(s) among family members	yes	40(28.0)
	none	103(72.0)
Making nurses' image	SNS or literature	29(20.3)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	33(23.1)
	nurse(s) in family	36(25.2)
	clinical practice	45(31.5)

Practice turns	1st	59(41.3)
	2nd	36(25.2)
	3rd	48(33.6)
Practice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58(40.6)
	pediatric wards in university hospital	11(7.7)
	children's Hospital	43(30.1)
	general Hospital	31(21.7)

3.2 대상자의 실습 전 정서상태 점수

Table 2에서 보면, 정적·부적정서 각각 10항목의 평균은 30.89±5.49와 24.64±6.31로 정적정서의 평균이 부적정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정서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주의깊은’이었고, ‘열정적인’과 ‘흥미진진’이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었다. 부적정서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두려운’이었고, ‘조바심나는’, ‘과민한’이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었다.

Table 2. Mean scores of the subjects on each variables

Variables and items		Items [*]	Variables [*]
		M(SD) [*]	
Positive affect	interested	3.43(0.98)	30.89 (5.49)
	alert	3.20(0.73)	
	excited	2.93(1.01)	
	inspired	2.80(0.83)	
	strong	2.81(0.86)	
	determined	2.32(0.90)	
	attentive	3.45(0.91)	
	enthusiastic	3.43(0.86)	
	active	3.27(0.86)	
Negative affect	proud	3.22(0.89)	24.64 (6.31)
	irritable	2.89(0.99)	
	distressed	2.75(1.07)	
	ashamed	2.29(1.01)	
	upset	1.83(0.77)	
	nervous	2.13(0.90)	
	guilty	1.64(0.75)	
	scared	2.79(1.24)	
	hostile	1.97(0.86)	
jittery	2.97(1.22)		
afraid	3.38(1.19)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3 PANAS 외 자유서술된 대상자의 기타정서

Table 3에서 보면,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PANAS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서 중 정적정서로는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었고, 부적정서로는 ‘과도히 긴장됨’, ‘무력감’, ‘걱정됨’, ‘불편감’, ‘부담감’ 및 ‘체념함’ 등이 있었다.

Table 3. Other affects than PANAS

N=(37)			
Classification	Other affects	Contents	
Positive affect	Inflated expectations	Expectations for dealing with cute babies	
	Happy	Happy to treat babies	
Negative affect	Too strained	Nurses seem to be scared	
	Helplessness	Can not do anything	
	Worried		Worry about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what nurses say
			Worry about my practice is too difficult.
			It's boring to practice on children who can not speak.
			Worry about infecting the baby NICU
Discomfort	Unfamiliar clinical environment		
Heavey burden	Burden of practice and case study		
Resignation	Just go for two weeks.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

Table 4에서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남학생의 아동간호학실습 전 정적정서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2.04, p=.043$), 여학생의 부적정서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3.23, p=.002$). 종교에 따른 정적·부적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격유형에 따른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외향적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중간 성격의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69,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정서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공만족도에 따른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적정서가 불만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F=5.24, p=.006$), 전공만족도에 따른 부적정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에서 적성에 따라 선택한 집단의 정적정서가 취업을 고려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76, p=.01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형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부적정서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 중 간호사의 모습에 따른 이미지형성집단의 부적정서가 임상실습으로 형성된 이미지형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86, p=.039$). 그러나, 임상실습 회차나 실습예정 병원유형은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ed factors of emotional state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Divis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SD) [*]	t or F(p) Tukey or Dunnnett	M(SD) [*]	t or F(p) Tukey or Dunnnett		
Sex	male	3267(510)	2.04	21.43(6.29)	-3.23		
	female	3039(551)	(.043)	25.49(6.06)	(.002)		
Religion	yes	3159(467)	1.08	24.50(6.55)	-0.18		
	none	3053(583)	(.280)	24.70(6.23)	(.860)		
Personality type	extrovert ^a	3389(471)	7.69	23.29(6.07)	1.12(.330)		
	middle ^b	2991(549)	(.001)	25.13(6.39)			
	introverted ^c	2957(378)	a>b	24.29(6.18)			
Healthy status	below average	3175(802)	0.18	24.75(7.50)	0.14		
	average	3036(427)		(.840)		25.23(5.35)	(.870)
	healthy	3096(568)		24.50(6.52)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a	2955(548)	5.24	25.36(5.97)	2.50		
	average ^b	3242(515)	(.006)	24.25(6.57)		(.086)	
	satisfaction ^c	3263(507)	b>a	20.38(6.57)			
Motive of admission	to fit aptitude ^a	3260(546)	3.76	34.55(6.46)	0.17		
	to match grade ^b	2865(428)		(.012)		25.77(5.86)	(.920)
	consider Job opportunity ^c	2977(531)		a>c		24.55(6.31)	
	to serve others ^d	3283(649)		24.00(7.27)			
Nurse(s) among family member	yes	3138(537)	0.69	25.53(6.79)	0.70		
	none	3067(554)		(.490)		24.79(6.11)	(.480)
Making nurses' image	press or literature ^a	3152(616)	4.32	23.38(6.52)	2.86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 ^b	3055(636)		(.730)		25.36(5.52)	(.009)
	nurse(s) in family ^c	3136(499)		c>d		26.81(6.59)	
	clinical practice ^d	3029(479)		23.18(6.11)			
Practice turns	1st	3132(541)	0.35	24.83(6.79)	0.22		
	2nd	3067(454)		(.701)		24.97(6.22)	(.802)
	3rd	3046(625)		24.15(5.85)			
Types of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3029(604)	0.77	24.53(5.99)	0.05		
	pediatric wards in University hospital	3100(598)		(.512)		24.36(5.52)	(.984)
	Children's Hospital	3070(513)		24.56(7.02)			
	General Hospital	3213(470)		25.03(6.40)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5 대상자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과 Table 6에서 보면,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 예정 병원유형을 가변수처리 후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원유형이 정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별이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식 $Y=30.925-2.777*전공만족+4.241*성격유형+2.001*입학동기+2.635*실습예정병원유형$ 로, 부적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식 $Y'=20.720+3.486*성별$ 로 각각 도식화 할 수 있고, 정적·부적정서에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22.8%와 7.8%이었다($p<.001$; $p<.008$).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positive affect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Constant)	30.925	1.131		27.350	.000	.228	7.989
Sex	-1.428	1.013	-.106	-1.410	.161		
Satisfaction in major	-2.777	.849	-.253	-3.269	.001		
Personality type	4.241	.950	.333	4.462	.000		
Motive of admission	2.001	.878	.177	2.279	.024		
Types of hospital	2.635	1.007	.199	2.616	.010		

p<.001

Table 6.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negative affect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Constant)	20.720	1.421		14.582	.000	.078	3.106
Sex	3.486	1.273	.226	2.738	.007		
Satisfaction in major	1.355	1.067	.107	1.270	.206		
Personality type	-1.643	1.194	-.112	-1.376	.171		
Motive of admission	.651	1.103	.050	.590	.556		
Types of hospital	.050	1.266	.003	.040	.968		

p=.008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간호학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전 정서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정서상태와 유사한 개념들인 ‘스트레스’, ‘불안’ 등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관련 연구들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간호대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과 임상실습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3.53점으로 일반대학생의 2.9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8,11,12].

본 연구에서 외부 임상실습 첫 학기인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일주일 전에 측정된 정서 중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10개 항목의 합은 각각 30.83 ± 5.49 , 24.64 ± 6.31 로 정적정서가 부적정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2학년 학생 대상의 정서중재 실험연구 시행 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합인 29.95 ± 6.43 , 24.00 ± 8.28 과 유사한 결과였다[10].

본 연구 대상자의 정적정서 중 ‘주의깊은’, ‘흥미있는’, ‘열정적인’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아동중환자실 및 아동병동에서 다양한 대상자들 대상의 실습 전 실습에 대한 기대나 흥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부적정서의 합인 24.64 ± 6.31 점 중 가장 높은 정서인 ‘두려운’의 평균은 3.38 ± 1.19 점으로 나타나 아동간호학 실습 시작 전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습 전 두려움의 대상 등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서측정도구인 PANAS는 Watson(1988) 등이 정서 관련 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 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다[9]. 이 도구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서 중 대상자들이 자유로 기입한 정적·부적정서 목록을 연구자가 임의로 PANAS 중 유사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미와 어근이 유사한 정서 개념을 통합하였고 이에 대해 간호학교수 1인의 내용검증을 받아 정리하였다. 대상자들이 기입한 정적정서는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었는데 ‘귀여운 아기들을 대할 것에 대한 기대감’, ‘아기들을 대할 것에 대한 행복감’을 정적정서로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아동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한 42명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질적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희망, 행복, 흥미 등의 정적정서를 느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6]. 아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아동간호학 실습 전과 실습과정을 통하여 행복감이나 기대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적정서를 가진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후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위한 근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아동간호학 실습 시작 전부터 PANAS 외에 경험한 부적정서는 ‘과도히 긴장됨’, ‘무력감’, ‘걱정됨’, ‘불편감’, ‘부담감’ 및 ‘체념함’ 등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와 연구시점은 다르지만 아동병원에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분노’, ‘무력감’, ‘고도의 역할긴장’ 등의 부적정서를 호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들은 과제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5,6,13]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기도 전부터 갖게 되는 정서로 정적정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과도한 긴장 및 심지어는 체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는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성취도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우울 등의 부정정서로 이어져 자살생각이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동간호실습 전 정적정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적정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도구와는 다른 도구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연구에서 여학생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12,14-18],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으나[19], 임상실습 환경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긴장의 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와[14]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여학생인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의 실습 전 정서관련 중재 프로그램 시행의 필요를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종교 유무는 정서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정서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결과에서 종교에 따른 정서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도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 전 정서상태를 연구한 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다른 결과였다[20].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에서 외향적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중간 성격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F=7.69, p=.001$), 이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첫 번째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대학생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상태에 미치는 낙관적인 자세가 신체, 심리, 사회적 증상들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회피적인 자세가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3]. 따라서 아동간호학 실습 전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정적정서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 20.38 ± 6.57 가 불만족한 대상자의 25.36 ± 5.97 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전공만족도가 보통정도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결과와 학과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 간호학 학업과 임상실습에 불만족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 전공에 불만족한 군보다 만족하는 군과 보통인 군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4,17,18,20]. 따라서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높은 임상실습 관련 정서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대상자의 경우 취업을 고려한 경우보다 정적정서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성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8,20]. 그러므로 간호학과 입학 전 적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그 이외의 동기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임상 실습 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가족 내 간호사 유무에 따른 정적, 부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형성 요인에 따른 집단별 아동간호학 실습 전 부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에서 가족 중 간호사가 있어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한 집단의 부정적정서가 임상현장에서 본 간호사를 통해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연관된 요인 중 가족구성원 중 간호사나 서적 등을 통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지만 기타 대중매체나 임상실습 중 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한 이미지 형성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1].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21].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28%가 가족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소수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 가족 중 간호사를 통해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정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함께 생활하며 받은 이미지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이므로 일상생활 중에서도 가족 중 간호사를 통해 전달된 간호사에 대한 어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고 간호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간호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회차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 부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임상실습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집단이 12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임상실습관련 스트레스가 더 높아 임상실습 기간이 길수록 간호대학생들의 실습관련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16].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설문응답 직후의 아동간호학 실습이 첫 실습인 경우와, 이미 2주간과 4주간 타학과목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게 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실습기간이 길수록 실습관련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연구의 대상자들과 비교 시 일부 집단은 외부임상실습 경험이 없고 일부 집단의 경우는 실습기간이 짧아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집단 간 실습 전 정적, 부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실습기간을 연장한 추후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중환자실과, 대학병원 소아병동, 아동전문병원 소아병동, 일반병원 소아병동으로 구분하여 아동간호학 실습지로 배정받아 임상실습 수행예정이었다고, 실습 전 일주일 간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보고하였는데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대상자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를 비교할 수 없지만, 임상실습지의 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실습관련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간호대학생의 실습예정병원별 취약점을 고려한 집단별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4,18]. 증가하는 간호학과 입학 정원으로 간호대학생의 실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대학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실습관련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임상지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원유형을 가변수처리 후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원유형이 정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별이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부적정서에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22.8%와 7.8%이었다($p < .001$; $p < .008$). 간호대학생이 아동간호학 실습 전 경험하는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학에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가 낮았다

는 연구나, 간호대학생의 행동유형에 따른 정서연구에서 사교형의 우울과 불안 및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결과, 적성에 따르지 않고 기타의 이유로 전공선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등은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17,18,22].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아동간호학 실습 전 경험하는 부적정서상태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 내에서 여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부적정서를 경감시켜 임상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임상실습 수행도를 높이고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하게 될 임상실무에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간호학 실습 과목 중 아동간호학 실습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아동대상자와, 아동의 입원으로 예민해진 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는 임상상황에 임하기 전인,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전 정서상태를 조사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대학생들의 정서를 PANAS(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 ‘주의 깊은’, ‘열정적인’ 및 ‘흥미진진’ 등의 정적정서 이외에 ‘두려운’, ‘조바심나는’ 및 ‘과민한’ 등의 부적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AS 이외의 정적정서로는 ‘기대감’과 ‘행복감’ 및 ‘걱정됨’, ‘불편감’, ‘부담감’, ‘체념함’, ‘과도히 긴장됨’ 및 ‘무력감’의 부적정서를 호소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었고, 정적정서에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및 실습예정병원으로 나타나 각 집단별 정서중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은 자신의 미래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갖추어 나가며 간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양육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이다.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반복연구 후, 아동간호학 실습 전 긍정적인 정서상태로 실습에 임함으로써 효과적

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중재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느끼는 부적정서의 원인을 규명하는 질적연구와, 실습 전후의 정서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기타 간호학 학과목 실습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정서상태의 비교 연구 시행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D. Gloe, L. Thomas, I. V. Papanthasiou & K. Tsaras. (2017). A literature review 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26*(5), 471-480.
DOI: 10.1080/09638237.2016.1244721. Epub 2016 Dec 14. Review.
- [2] K. Turner & V. L. McCarthy. (2016). Stress and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A review of intervention strategies in literature between 2009 and 2015.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2*(2017), 21-29.
DOI: 10.1016/j.nepr.2016.11.002. Epub 2016 Nov 12.
- [3] S. Sheu, H. S. Lin & S. L. Hwang. (2002). Perceived stress and physio-psycho-social statu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practice: the effect of coping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9*(2), 165-175.
- [4] J. K. Kim. (2014).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47-59.
DOI: 10.5977/jkasne.2014.20.1.47
- [5] W. M. Chernomas & C. Shapiro. (2013).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0*(1), 255-266.
DOI: 10.1515/ijnes-2012-0032.
- [6] J. Y. Chen. (2010). Morale and role strai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 pediatric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8*(2), 144-153.
DOI: 10.1097/JNR.0b013e3181e365a0.
- [7] I. S. Kown & Y. M. Seo. (2012).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25-33.
DOI: 10.5977/jkasne.2012.18.1.025
- [8] A. Aradilla-Herrero, J. Tomás-Sábado & J. Gómez-Benito. (2014).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suicide risk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4*(4), 520-525.
DOI : 10.1016/j.nedt.2013.07.001. Epub 2013 Jul 23.
- [9] D. Watson, L. A. Clark & A. Tellegen.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10] J. H. Nam. (2016). *The Effects of a Loving-Kindness Meditation Program on the Empathy, Emotion, and Stress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11] S. Y. Kim & M. S. Shin. (2017). A Study of the Stress Encountered in Clinical Practice by Students Major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6*(2), 113-127.
DOI: 10.15724/jslhd.2017.26.2.010
- [12] S. K. Cha & E. M. Lee. (2014).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50-658.
DOI: 10.5977/jkasne.2014.20.4.650
- [13] E. M. Ji & J. H. Lee. (2014).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125-1140.
<http://www.riss.kr/link?id=A101600028>
- [14] S. M. Kim & T. Y. Hwang. (2014).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06-616.
DOI: 10.5977/jkasne.2014.20.4.606
- [15] H. J. Jang & K. H. Jung. (2018). Stress in before clinical practice, anxiety,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35*(1), 131-140.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354075>
- [16] A. K. Lee, H. S. You & I. H. Park. (2015).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154-163.
DOI: 10.11111/jkana.2015.21.2.154
- [17] Y. M. Bong. (2012). *Relationships between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and Pediatric Nursing Theoretical Education Hours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8] E. Y. Kim & S. H. Yang.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DOI: 10.11111/jkana.2015.21.4.417
- [19] S. S. Hong & M. J. Park. (2014).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070178>
- [20] M. K. Jeon & M. S.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40-48.
DOI: 10.5762/KAIS.2017.18.1.40
- [21] J. H. Park. (2012). *Comparison of Nurses' Image among BSN, 2nd-BSN and RN-BSN Student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2] Y. S. Song. (2014). Difference in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ccording to Behavioral Types (DiSC)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115-1124.
UCI : G704-000930.2014.16.2.013

정 인 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leejung@naver.com